

서아시아전의 원흉 미제국주의를 타도하자!



제국주의미국과 시오니즘이스라엘이 침략과 학살을 극악무도하게 벌이고있다. 5일 이란보건부는 공습으로 인해 6일동안 92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2월28일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미국·이스라엘은 하메네이이란최고지도자를 사살했고, 이란남부 도시 미나브의 여학교를 공격하며 10대여학생들 최소171명을 참혹하게 학살하며 이란민심을 격분시켰다. 제국주의의 간악성은 미국이 침략전쟁인 26일 이란과의 핵협상을 진행한것으로 드러난다. 미국은 외교적협상중에도 국제법과 유엔헌장을 난폭하게 유린하는 침략전쟁을 준비하며 국제질서를 완전히 붕괴시켰다. 특등전범국가 미국·이스라엘의 악랄한 만행으로 세계는 엄청난 혼란과 격변에 휘말리고있다.

이란의 반격과 항전은 자위권으로서 지극히 정당하다. 이스라엘가자지구점령지·이스라엘내주요거점과 바레인미해군기지를

비롯해 아랍에미리트·카타르·요르단·이라크등 미군사기지를 타격한 이란은 5일기준 <진정한약속4>작전으로 19차공격을 진행했다. 특히 1일 <링컨>미항모에 4발의 미사일을 발사·타격했고 서아시아내 미CIA건물들을 폭격했으며 5일 튀르키예 나토군사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날렸다. 프랑스는 <샤를드골>항모전단을 지중해에 전개시켰고 영국은 5일 <타이퐁>전투기4대를 카타르에 파견하면서 제국주의전쟁사령부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전쟁에 깊숙이 개입하고있다는것을 드러냈다. 예멘·레바논·이라크등에서 활동하는 반제반시오니즘무장세력 <저항의축>은 이란과 함께 항전하며 곳곳에서 미군사자산을 타격하고있다.

이번 전쟁은 미국·이스라엘의 위험한 도발이다. 이란은 작년 6월 <12일전쟁>에 대한 교훈으로 상대의 폭격에 견딜수 있는 <모자



이크방어)체계를 수립했고 이에 따라 미국-이스라엘의 전격전은 장기적소모전으로 전환된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란의 탄도 미사일1발을 요격하는데 패트리엇요격미사일10발이 쓰인 동영상 공개되기도 했다. 이란은 값싼 드론-미사일들로 상대의 방공망을 분쇄한뒤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할것으로 예측된다. <12일전쟁>당시 이란은 5일만에 이스라엘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경험이 있다. 한편 트럼프가 <서반구중시전략>에서 이란해 갑자기 이란전을 일으킬것은 국내에서 날로 심각해져가는 정치경제적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다. 이스라엘총리 네타냐후도 3월 말 예산을 통과시키지못하면 실각할수밖에 없다.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최대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꼬리가머리를흔드는> 외부의 전쟁을 일으켰다.

제국주의세력이 3차세계대전을 본격화하기 위해 미쳐날뛰고있다. 2023년 10월 시작된 팔레스타인전·서아(아시아)전이 서아시아일부에서 국지적으로 벌어졌다면 이란전에 따른 서아시아전은 전면전을 예고하고있다. 서아전의 불길은 대만전·한국전으로 번질수 있다는 예측은 합리적이다. 제국주의세력은 2차세계대전이후 <냉전>체제를 형성해 최악의 정치·군사위기를 모면했던 경험을 살려 3차세계대전을 통한 <신냉전>체제를 조작하려고 발광하고있다. 전쟁의 원흉, 평화의 파괴자 제국주의가 있는한 인류의 최대비극은 반복되지않을수 없다. 우리민중과 세계인류는 반제투쟁에 총결기해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자주와 평화의 새세상을 앞당길것이다.

[대변인실보도(성명) 651]

대이란침략전쟁에 미쳐날뛰는 미제국주의를 타도하자!

제국주의미국이 기어이 이란을 침략하는가. 현재 미국은 공군전력의 약50%를 서아시아(중동)에 집결시키며 대이란침략책동의 수위를 높이고있다. 이는 2003년 이라크전이후 최대규모다. 이란인근해에 <링컨> 항모전단이 전개된 와중에 현재 <포드>항모전단이 지중해에 진출하면서 이란주변에만 2개의 항모전단이 배치됐다. 19일기준, 24시간동안 미국은 F22·F35스텔스기등 전투기50여대를 서아시아에 급파했으며 조기경보통제기·정찰기·공중급유기도 이란쪽으로 이동시키고있다. 18일 외신은 21일 대이란공격준비는 완료되며 미대통령 트럼프의 최종결정만 남았다고 보도했다. 22일 트럼프는 한인터뷰에서 <왜항복하지않는가>라며 이란을 심각하게 도발했다.

미국의 대이란침략은 올해 1월부터 사실상 본격화됐다. 작년 12월 이란경제위기가 불러온 시위는 1월8일 미국-이스라엘정보기관이 배후조종하는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폭동으로 비화됐다. 미국은 이란당국이 폭동을 진압하면서 이란정권전복에 실패하자 이제는 직접 이란을 침공하겠다고며 제국주의침략본색을 노골화하고있다. 한쪽에선 협상을 하면서 다른한쪽으론 침략무력을 집결시키는 악랄한 2중술책으로 이란정부를 압박하면서 주권을 심대하게 위협하고있다. 1월3일 베네수엘라침략과 마두로대통령불법체포가 베네수엘라원유를 노리고 한것이듯 현재 대이란침략책동도 이란의 원유를 갈취하기 위한것이다. 이란원유의 80% 이상이 중국으로 향하는 사실은 미국의 침략책동이 비단 이란만 겨냥한것이 아니라는것을 보여준다.

트럼프정부가 심각한 정치경제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대이란군사적도발을 강화하고있다. 2월초 미법무부가 공개한 <엡스타인파일>에 트럼프와 미상무장관 러트닉등 주요인사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엄청난 파문이 일고있다. 이미 작년 7월부터 트럼프지지세력 <MAGA>내에서는 엡스타인파일을 두고 강한 반발과 심각한 분열이 일어난바 있다. 트럼프의 <관세전쟁>에 의한 관세부담의 95%이상이 미국내 수입업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경제문제에 더해 ICE(이민자단속국)의 미국시민권자사살사건까지 겹치면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30%대로 바닥을 기고있다. 트럼프는 미대법원의 <관세부과위법>판결에도 21일 관세를 최대 15%까지 올리겠다고 <대법판결과장난치는국가엔터센관세>부과를 발악하고있다. 몰릴대로 몰린 트럼프는 역대 제국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내부위기와 민심반발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침략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20일 뉴욕타임스는 이란전이 터지면 이란의 보복전으로 상당히 많은 미군피해가 발생할수 있다, 이란의 공격사정권에는 서아시아13개군사기지에 주둔중인 3만~4만명의 미군병력이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23일 이란은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설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침략행위>로 간주해 대응할것이라고 엄중경고했다. 이란이 미사일강국이라는것은 작년 6월 카타르미군기지의 미사일레이더만 정밀타격을 한것으로 명백히 확인됐다. 이란전은 서아(아시아)전으로 확대되고 나아가 동아전으로까지 변질수 있다. 침략과 학살, 지배와 약탈에 미쳐날뛰는 제국주의를 상대로 반제투쟁국제연대를 강화하는것은 현시기 반제세력, 평화세력이 해야할 가장 중요한 투쟁과제다. 우리는 전체민중을 반제반미투쟁에 불러일으켜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미제침략군대 미군을 철거시키며 자주와 평화의 새세상을 앞당길것이다.

2026년 2월23일 서울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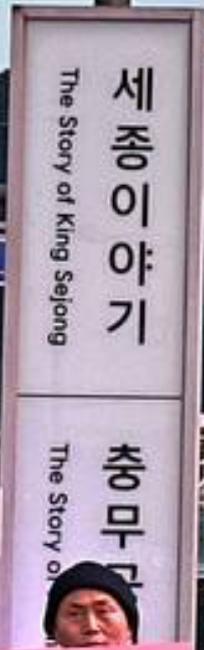


[대변인실보도(논평) 651]

**대이란침략전쟁에
미쳐날뛰는
미제국주의 타도하자!**

2026년 2월23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서스문고가 없거
공사중 우회바람

50

삼봉로
Sambong-ro



No pasarán!

FREE MADURO

반제투쟁국제연대
미제국주의 타도하자!

대이란침략책동중단
즉각 중단하라!



〈대이란침략책동중단!미제국주의타도!〉 반제반파쇼정당연설회

2.27 민중민주당(민중당)·반미투쟁본부·21세기체계바라(Defense Brigade)는 미대사관앞에서 반제반파쇼정당연설회를 진행했다.

사회자는 미국은 2003 이라크전 이후 최대규모의 공군전력을 이란인근에 집결시키며 연일 이란전을 도발하고있다, 이란전은 곧 서아시아전으로 되며 동아시아전을 촉진할수 있다는점에서 현시기 가장 위험천만하며 반드시 막아야할 전쟁이다, 이란뿐아니라 베네수엘라와 쿠바, 〈한국〉에서도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약탈책동은 계속되고있다, 제국주의 타도만이 우리의 살길이다, 단결하고 투쟁하여 제국주의타

도의 날을 앞당기자라고 강조했다.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프닉스상임연구위원은 진자로서란에서 전면전이 일어나면 호르무즈해협의 석유수송로가 봉쇄되고 에너지가격은 물론 중동전체에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할것이라고 역설했다.

21세기체계바라단원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약탈이 없는 평화로운 세세상을 위해, 제국주의타도의 구호를 더욱 높이 들고 투쟁하자, 완강한 반제투쟁국제연대로 세계민중과 함께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공동성명]

대이란 침략 전쟁 행동 자행하는 미제국주의 타도하자!

미제국주의의 위험천만한 이란 침략 전쟁 행동이 자행되고 있다. 미대통령 트럼프는 19일 이란과의 핵협상이 <최대 15일 내의 미 있는 합의가 없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사실상 선전 포고를 했다. 이란 인근 해에 <링크> 항모전단, 지중해에 <포드> 항모전단이 진출했으며 유럽·서아시아(중동) 기지로 150대가 넘는 군용기가 전개했다. 2003년 이라크 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공군 무력이 이란 주변에 집결해 있으며 외신들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전면전 혹은 제한전을 예고하고 있다. 22일 트럼프는 이란을 겨냥해 <외항복하지 않는가>라며 전쟁 도발을 일삼았다. 이란은 미국이 군사 행동을 할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침략 행위>로 간주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력히 맞서고 있다.

현재 쿠바를 상대로 한 미국의 고압살이 학살 수준으로 악랄하게 벌어지고 있다. 미국이 카리브해역에 쏟아붓는 하루 2000만 달러 이상의 침략·봉쇄 작전 비용은 베네수엘라만이 아니라 쿠바를 겨냥한 것이다. 쿠바로 향하는 유조선들을 불법 나포하고 합법적인 쿠바 지원선박들을 위협하면서 쿠바에 대한 고압살책동을 미친듯이 하고 있다. 2025년 10월 29일 유엔 총회에서는 미국의 쿠바 경제 봉쇄 해제 촉구 결의안이 찬성 165표, 반대 7표를 기록하며 압도적으로 채택됐음에도 트럼프 정부는 쿠바 봉쇄를 더욱 강화하면서 유엔과 국제법을 난폭하게 유린하고 있다. 1000명당 5명 미만 이던 영아 사망률이 8.5명으로 증가하고 현재 병원의 불안정한 전력 공급으로 6만 1000명이 넘는 영유아의



미제국주의타도!

생존이 위태로운 비참한 현실은 철두철미 미제국주의의 야수적 봉쇄정책에 기인한다.

미제국주의에 의해 <한국>의 운명도 바람앞의 촛불 신세다. 트럼프정부는 미대법원의 <상호관세위법판결>에 글로벌관세15% 인상추진으로 맞대응하면서 동시에 대법판결로 <장난을치려하면> 더 높은 관세와 더 나쁜것을 마주할게 될것이라며 미쳐날뛰고있다. 미국은 이미 <한국상호관세25%로인상>을 망발하며 먼저 협상결과를 위반했고 반도체기업을 겨냥해서 100%관세부과를 협박했다. 주<한>미군은 <한국>정부를 완전히 무시한채 독단적으로 미전투기를 서해상에 출격해 중국을 극도로 자극했고 일본의 독도강탈야욕의 결정체인 <다케시마의날>에 맞춰 <한국>에 미일<한>공중연습을 강요하며 우리민중의 존엄을 짓밟으면서 전쟁도발수위를 발광적으로 높였다. 이런 와중에 다음달 9일부터 19일까지 대조선침략전쟁연습인 <프리덤실드>대규모 합동군사연습까지 예정돼있다.

트럼프는 서아(아시아)전을 감당할수 있겠는가. 미사일강국 이란과의 전쟁이 전면적인 서아전으로 비화되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뉴욕타임스는 이란공격사정권에 13개기지에 주둔중인 3만~4만명의 미군병력이 있다고 보도했고, 미합참의장 케인은 이란공격시 긴 전쟁에 휘말린다고 우려했다. 미국 방공미사일비축량은 약2주분밖에 없어서 이를 다쓰면 대중국방어태세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있다. 서아전이 터지면 대만전과 <한국>전의 동아전이 발발하며, 이어 동구(유럽)전이 터지면서 3차세계대전은 본격화될것이다. 첨예한 이란전위기와 세계전쟁참화의 위기속에서 우리가 할일은 <제국주의타도>의 기치아래 단결하고 투쟁하는일이다. 정의로운 우리민중은 반제반미투쟁에 총력기해 미제침략군대를 철거하고 제국주의를 타도하며 자주와 평화의 새세상을 앞당길것이다.

2026년 2월27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반미투쟁본부 21세기체계바라(Defense Brigade) 민중민주당



〈이란침공강력규탄!서아시아전도발 제국주의타도!〉 1~4차긴급정당연설회

2026.2.28 민중민주당(민중당)은 미대사관앞에서 〈이란침공강력규탄!서아시아전도발제국주의타도!〉 1~4차긴급정당연설회를 진행했다.

민중민주당반미반전특별위원회위원장은 오늘 이스라엘과 미국은 테헤란을 침공하며 〈예방적미사일공격〉이라고 떠들었다, 미국·이란의 3차핵협상 2일만에 선제공격을 감행한것이다, 이스라엘언론은 〈수개월에걸쳐공동으로계획했다〉면서 〈합동공격의

초기단계가4일간지속)될것이라고 밝혔다, 미제국주의와 그주구 이스라엘시오니스트가 협상판에서 외교놀음을 벌이는 동시에 대규모무력을 동원한 침략전쟁을 준비한것이다라고 폭로했다. 민중민주당인천시당위원장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제한전을 노린것이라 해도 언제든 전면전으로 확대될수 있는 형국이다, 당장 이란침략을 중단해야한다, 이란은 미국이 군사행동을 할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침략행위〉로 간주해 대응할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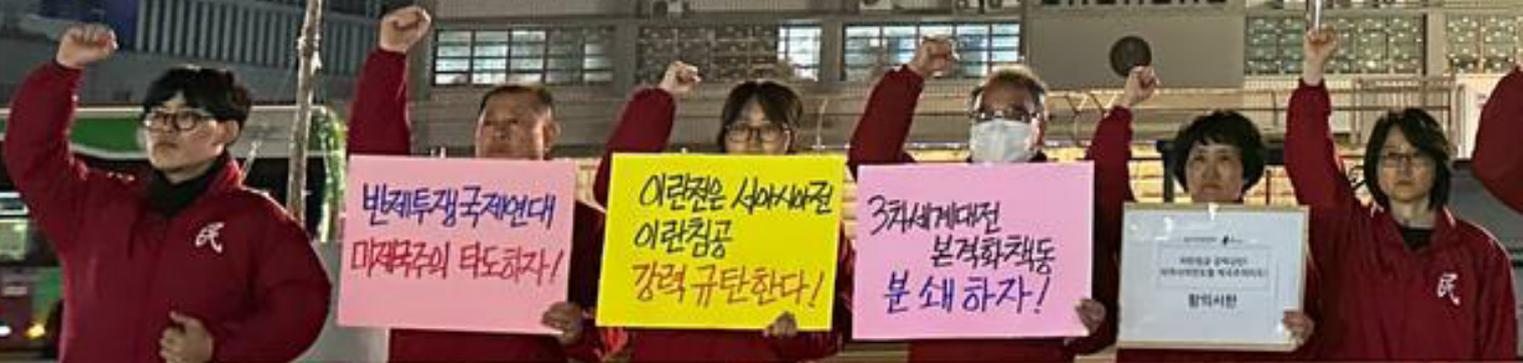


라고 강력히 맞선바였으며 서아시아미군기지들은 이미 이란미사일의 타격을 받고있다, <저항의축>나라들도 이스라엘공격제개를 선언하고있다고 경고했다.

민중민주당경기도당위원장은 이란전중심 서아(아시아)전은 동아전을, 동아전은 동구전을 결정적으로 촉진하기에, 이란전이 서아전이기에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에게 죽음이다, 이란전으로 인해 페르시아만의 미군기지들이 초토화되고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미핵항모단이 극초음속미사일로 파괴되고 이스라엘은 온나라가 불바다로 바뀌게 된다, 서아전은 불피코 동아

전으로 이어지고 동아전은 동구전으로 나아가고 동아전·동구전은 다시 서아전으로 회귀해 3차세계대전은 심화되고 제국주의 몰락은 한층 앞당겨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민중민주당청년학생당원은 제국주의와 이스라엘시오니즘을 비롯한 그파쇼주구를 완전히 끝장내야만 서아시아의 평화, 나아가 세계평화를 진정으로 실현할수 있다, 이란을 비롯한 세계모든민중과 단결하고 투쟁해 제국주의와 그파쇼주구를 완전히 끝장내고 모든 전쟁도발을 분쇄하며 세계의 진정한 평화를 앞당겨 실현해내자라고 피력했다.



[대변인실보도(논평) 653]

미제국주의와 이스라엘시오니즘은 대이란침략을 즉각 중단하라!

1. 미국과 이스라엘이 기어이 또 이란을 침공했다. 28일 이란 수도 테헤란과 이스파한, 쿰, 카라지, 케르만샤등 이란곳곳에서 폭발음이 이어졌다. 이스라엘은 <예방적선제공격>이라는 침략 명분을 들며 <포효하는사자>작전을 시작했다고 망발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영상메시지를 올려 대이란침략이 <대규모며현재도진행중>·<우리는그들의미사일을파괴하고미사일산업을완전히초토화할것이다.해군도전멸시킬것>이라며 제국주의침략자의 악랄한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란은 미국-이스라엘의 침략을 <국제법위반>으로 규탄하며 즉각 이스라엘에 대규모미사일·드론공격을 전개했고 미군기지가 있는 바레인·카타

르·아랍에미리트등지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2. 서아시아(중동)평화의 파괴자, 서아(아시아)전의 원흉은 철두철미 제국주의미국과 시오니즘이스라엘이다.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전이래 이스라엘은 현재 공식적으로 7만2000명이상, 비공식적으로 20만명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을 처참하게 살육했고 작년 10월 체결한 평화협정을 끊임없이 위반하고있다. 이스라엘학살만행의 배후세력이 미제국주의라는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팔레스타인전·서아전이 전개되는 와중에 미 제침략세력의 기획아래 이스라엘은 2024년 4월 주시리아이란



반! 미제국주의타도!

민중민주당(민중당)

영사관을 폭격했고, 같은해 10월 대이란공습을 감행했으며 작년 6월 <일어서는사자>이란침략을 벌였다. 특히 작년 6월 호전광 트럼프는 이란핵시설타격으로 이란본토를 공격하면서 참고참고 또 참는 이란을 악랄하게 도발했다. 주지하다시피 이란은 다른나라를 먼저 공격한적이 단 한번도 없다. 트럼프가 내뱉은 <임박한이란의위협>이라는 궤변대로라면 이란은 벌써 수백수천번 이스라엘과 서아시아주변미군기지들에 미사일을 퍼부어야 한다.

3. 제국주의침략세력이 대이란폭격으로 3차세계대전본격화를 획책하고 있다. 대이란침략은 전면적서아전을 불러오며 이는 동아전을 촉진한다. 이어 동구(유럽)전까지 터지면 3차세계대전은 본격화된다. 제국주의침략세력은 반제진영을 <신침략자의축>으로 악랄하게 모략하고 기어이 <신냉전>체제를 조작하며 최악

의 정치·경제적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발광하고 있다. 한편 작년 6월18일 이란은 <이스라엘항공장악>공식발표를 통해 이스라엘 <아이언돔>이 무용지물이라는것을 보여줬다. 이란인근의 2개 미항모전단이 이란미사일의 된타격을 받을것은 예정된 수순이다. 이란이 움직이면 반제반시오니즘무장세력 <저항의축>이 함께 항전할것이다. 반제진영의 <전략적인내>가 철회되는 순간,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는것은 미국·이스라엘등 제국주의세력이다. 최악의 전범세력 미제국주의와 이스라엘시오니즘의 필패와 몰락은 정이며 대세다. 이시대 최고의 정의이자 가치인 <제국주의타도>는 반드시 실현된다.

2026년 2월28일 서울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이란침공강력규탄! 서아

사할적으로 들어야할 구호, 〈타도제국주의〉 5~8차정당연설회



2026.3.1 민중민주당(민중당)은 미대사관앞에서 <이란침공강력규탄!서아시아전도발제국주의타도!> 5~8차정당연설회를 진행했다.

민중민주당반미반전특별위원회위원장은 <엡스타인파일>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고 트럼프지지집단인 <MAGA>를 비롯한 정치세력내부의 분열이 가속화되고있다, 관세전쟁으로 인한 물가인상은 잡히지않는데 연방대법원에서는 상호관세를 위법판결했고 시민권자를 대낮에 사살한 결과 미국의 민심은 흥흥하기만 하다, 파쇼적행태에 민심은 베네수엘라침공으로 더욱 트럼

프에게서 등을 돌렸다, 내전수준으로 치달은 미국내 정치적갈등은 이란침공과 같은 외부의 전쟁이라도 터뜨려야할 정도로 심화되고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란전을 정치적위기의 돌파구로 찾은 트럼프는 자기무덤을 깊숙이 파고 스스로 그무덤안에 들어가는 수준에 이른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중민주당인천시당위원장은 트럼프의 이란공격은 전대미문의 최악의 위기와 궁지에 몰려 감행한 마지막발악이다, 하메네이사파와 이란군경을 향한 <지금투항하지 않으면죽음뿐>이라는 압박은 이런민중의 결사항전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될것이다,



시아전도발제국주의타도!



외교로 얻을것보다 전쟁으로 잃을것이 적다는 판단, 공화국의 생존이 최우선이라는 명확한 지침아래 전면적인 항전을 준비해 왔음을 여러번 확인한바 있는 이란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중민주당경기도당위원장은 미제국주의와 이스라엘시온주의의 만행으로 인해 이란최고지도자가 이란민중들과 더이상 같이 할수 없게 됐다, 악행을 거듭하는 제국주의와 시오니즘은 정의로운 이란민중과 세계민중에 의해 반드시 제거될것이다, 이것이 역사의 힘이다, 이란민중들은 조직적반격으로 자신들의 주권을 반드시 지켜낼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민중민주당서울시당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맹목적인 패권주의가 빚어낸 끔찍한 비극의 한가운데 서있다, 우리는 이번 이란전의 구조적진실을 직시해야한다, 현재 서아시아의 위기는 단순한 종교적, 민족적 갈등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의 극단적인 친이스라엘정책과 산군복합체의 탐욕, 그리고 제국주의의 패권이

만들어낸 필연적결과다, 이번 대이란침략은 쇠락해가는 정치경제적위기를 타개하고 억지로 <신냉전>체제를 조작하여 세계패권을 연장하려는 미제국주의의 단말마적발악이다, 시오니즘은 이러한 제국주의적팽창을 서아시아에서 대리수행하는 가장 폭력적인 도구일뿐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중민주당청년학생당원은 수없이 경고해왔던 전면적서아시아전과 3차세계대전의 본격화가 그어느때보다 임박해왔다,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침공이 전면전으로 비화되면 대만전과 <한국>전이 발발하고 이어 동유럽전이 터져 3차세계대전이 본격화되는것은 시간문제다, 우리는 그어느때보다 경각성을 갖고 현상황을 민감하게 주시해야한다, 그리고 부정의에 맞서는 이란에 굳건히 연대하고 전세계민중과 단결하여 제국주의와 그파쇼주구를 완전히 끝장내는 투쟁에 떨쳐나서야한다고 피력했다.

[대변인실보도(논평) 654]

대이란침략전쟁에 미쳐날뛰는 미제국주의를 타도하자!

1. 미국-이스라엘침략세력들이 이란최고지도자 하메네이를 살해했다. 하메네이는 1989년부터 운명전까지 서아시아(중동)에서 가장 오랫동안 국가지도자를 역임한 인물로서 이란의 정신적지주와도 같다. 이란국영텔레비전은 그외에도 이란군참모총장 무사비, 국방장관 나시르자데, 혁명수비대사령관 파크푸르, 국방위서기 삼카니 등 이란군최고위휘부인사들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적신월사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침략으로 이미 200명 이상 사망했다. 이란남부 미나브의 한 여학교를 테러하는등, 이스라엘군은 이란민간시설을 겨냥한 야수적인 폭격을 감행하고있다. 하메네이죽음을 확인한 미대통령 트럼프는 <하메네이의제거로미국인과 전세계사람들의정기가실현됐다>고 악랄한 궤변을 내뱉었다.

2. 격노한 이란이 최대보복을 결의하고있다. 하메네이의 전권을 위임받은 이란최고국가안보회의사무총장 라리자니는 <시오니즘범죄자들과파렴치한미국인들이그들의 의행동을후회하도록만들어주겠다>·<국제악마들에게잇을수없는교훈을가르쳐줄것>이라고 확언했다. 이란국회의장 갈리바프는 <트럼프와네타냐후가<레드라인>을넘었다.그들은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 엄중경고했다. 이란혁명수비대는 1일 이스라엘-인근미군기지에 대한 미사일-드론공격을 6차로 전개하며 <이란군역사상가장 잔혹한공세작전>의 시작을 발표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이란미사일의 90% 이상이 이스라엘목표물에 명중했으며 친이란무장세력은 이라크미군기지를 폭발시켰다.

3. 제국주의의 특등전쟁범죄는 3차세계대전본격화를 흉계로 하고있는데 있다. 이란최고지도자의 죽음은 결정적으로 이번 전쟁을 전면전으로 비화시키며 서아(아시아)전을 격화시키고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전으로 3차세계대전을 시작한 제국주의침략세력은 이스라엘시오니즘-파쇼주구를 조종하고 <엡스타인파일>건을 비롯해 최악의 위기에 놓인 트럼프를 움직여 기어이 3차세계대전을 본격화해 <신명전>정세로 몰아가고있다. 주지하다시피 서아전이 터지면 대만전·<한국>전의 동아전과 동구(유럽)전이 터진다. 미정책연구소는 이란의 보복반격이 <절제>되었다고 분석했고 바레인미해군기지는 저속의 이란 샤헤드드론에 방공망이 뚫리면서 그취약성이 노출됐다. 3차세계대전이 본격화되면 반제진영이 <전략적인내>를 견지할 이유가 사라진다. 제국주의세력이 전면적위기를 모면하겠다며 벌이는 3차세계대전과 신명전조작의 그끝은 제국주의의 파멸이다. 반제세력을 중심으로 한 세계민중들은 반제공동투쟁에 총분기해 제국주의와 그주구들을 타도하며 자주와 평화의 새세상을 앞당길것이다.



2026년 3월1일 서울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서아시아전도발

미제국주의 타도하자!

력구타시



이란침공은 제국주의멸망의 시작이 될것 9~12차정당연설회

2026.3.2·3 민중민주당(민중당)은 미대사관앞에서 <이란침공 강력규탄!서아시아전도발제국주의타도!> 9~12차정당연설회를 진행했다.

한명희민중민주당대표는 미국과 이스라엘은 당장 이란에 대한 침략책동을 중단해야한다, 트럼프의 이란침공은 서아시아전으로 확전되고 서아시아전은 동아시아전을 촉진시키며 3차세계 대전의 본격화로 이어질것이다, 트럼프의 이란침공은 미친짓이다, 이란은 베네수엘라와 다르다는것을 모르는가, 트럼프는 이란의 새지도부와 대화하겠다고 하는데 트럼프와 대화할 이란의 새지도부가 구성될것이라고 생각하는것은 트럼프의 망상일뿐이다,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이란침공은 이란의 몰락이 아니라 제국주의멸망의 시작이 될것이라 확신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민중민주당경기도당위원장은 이란은 서아시아 페르시아만에 포진해있는 미군기지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미사일·드론을 퍼붓고있다, 이란과 미국간의 전쟁이 전면전단계에 이르면 미군은 서아시아전에 깊숙이 빠져 발목이 잡히게 되고 이것은 대만전이 터지게 되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대만전이 <한국>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전제들은 이미 준비됐다고 천명했다. 민중민주당반미반전특별위원회위원장은 미국내 반전시위가 확대되고있다, 워싱턴DC·백악관앞·뉴욕타임스퀘어·로스앤젤레스·시카고등에서 수천명시민이 모여 <전쟁은필요없다>·<이란에서손떼라(Hands Off Iran)>·<제2의이라크전쟁을멈춰라>는 구호를 외쳤다, 또다시 <끝없는전쟁>으로 인한 경제적피해를 우려하며 무모한 희생을 한목소리로 우려하는것이다, 트럼프지지집



시아전도발제국주의타도!



단인 <MAGA>에서도 이란침공을 비판하고있다, 트럼프는 8개 전쟁을 종식했다고 주장하며 노벨평화상을 달라고 생떼를 써대더니 기어이 서아시아전의 전범, 3차세계대전의 특급전범이 됐다고 피력했다.

민중민주당학생당원은 현재 민심은 무엇이 부정이고 무엇이 정의인지를 보여주고있다, 미국내에서도 27%만이 이란공격을 지지한다 밝혔고 43%가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뉴욕과 워싱턴을 비롯한 여러도시에서는 연일 반전평화시위가 전개되고있다, 뿐만아니라 이란내에서도, 파키스탄·한국등 세계각지의 민중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침공을 규탄하며 <이란침공즉각중단하라>·<학살과전쟁을멈춰라>고 소리높여 외치고있다, 이란은 강력한 보복을 경고하며 서아시아내 미군기지를 비롯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주요군사거점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15개월만에 참전을 선언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고 강조했다.

민중민주당인천시당위원장은 미군이야말로 세계패권장악을 위해 체제전복을 기획·실행해 수많은 나라를 실제 붕괴시켰으며 상대국지휘부 참수작전을 훈련하고 특정한 표적사살·암살도 비밀비재하게 벌여온 테러와 전쟁에 특화된 집단이다, 트럼프정부는 이제 서아시아전을 일으킨 명백한 전범이다, 저만 살겠다고 베네수엘라대통령남치및체포·유조선나포, 쿠바고립압살, 이란(색깔혁명)배후조종, 군사적침략까지, 테러에 해적질, 살육수준의 학살전을 서슴없이 벌여대는 제국주의세력의 멸망이 가까웠다는것을 읽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는 정권종말을 앞당기는 길을 택했다 13~16차정당연설회

2026.3.5 민중민주당(민중당)은 미대사관앞에서 <이란침공가려구태!서아시아전도발제국주의타도!> 13·14차정당연설회를 진행했다.

민중민주당반미반전특별위원회위원장은 정치적위기를 외부의 전쟁으로 모면해왔던 역사적사례는 수두룩하다, 1964 미대통령 존슨은 대선전 통킹만사건을 조작해 북베트남을 대규모폭격

하고 지상군을 투입하며 전쟁을 확대시켰다, 성스캔들로 탄핵에 직면했던 클린턴도 1998 수단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를 공습해 위기를 모면하려했던 사실이 있다, 이대로 가다간 11월중간선거 승리도, 재임의 꿈도 이룰수 없는 트럼프에게 이란침공은 한보수논객의 말처럼 <절대적으로역경고사악한행위>다, 트럼프는 다시 위대해지는 길이 아닌 정권종말을 앞당기는 무모



이란전은 서아시아전
이란침공
강력규탄한다!

도발제국주의

한 길을 선택했다고 일침했다.

민중민주당청년학생당원은 미국의 포탄은 민간인거주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오전수업중이던 이란의 한초등학교가 폭격으로 무너져 어린 여학생 165명이 목숨을 잃었다, 부모들이 맨손으로 시멘트덩이를 옮기며 울부짖는 현상이 바로 미제국주의가 말하는 <정의>의 실체인가, 이미 팔레스타인에서 7만 2000명을 학살하고 그중 70%를 여성과 아이들로 채운 시오니스트세력이 이제는 이란에서 똑같은 참극을 반복하고있다고 격분했다.

3.6·7 민중민주당은 미대사관앞에서 제국주의의 이란침략과 서

아시아전도발을 규탄하는 15·16차정당연설회와 반미투쟁본부·21세기체계바라(Defense Brigade)와의 반제반파쇼정당연설회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모든 정당연설회에서 구호<이란전은서아시아전, 이란침공강력규탄한다!>·<미국이스라엘은이란침공즉각중단하라!>·<3차세계대전본격화책동분쇄하자!>·<서아시아전도발미제국주의타도하자!>·<반제투쟁국제연대미제국주의타도하자!>를 힘차게 외쳤다.

서아전등 4개전장 어느곳에서도 제국주의는 승리할수 없다

정진

3.1 이란 테헤란 헤메네이죽음을 애도하는 민중들

현서아(아시아)전은 이전의 서아전과 확연히 다르다. 그이전의 어떤 서아전도 현재처럼 미제국주의와의 전면전은 아니었다. 지금 이란은 미군과 서아에서 전면전을 벌이고있다. 페르시아만의 아랍국들에 있는 미군기지들이 불타고있다. 이스라엘도 이란의 미사일등공격에 초토화되고있다. 미국의 2개항모단에 이란의 극초음속미사일등이 날아올까봐 전전긍긍하고있다. 지역전쟁면에서 2023.10 팔레스타인전중심의 서아전은 국지전이었지만, 2026.2 이란전중심의 서아전은 전면전이다.

서아전은 동아전을 촉발하고있다. 1950 코리아전에 미국의 발이 묶이자 즉각 중국은 티베트를 병합했다. 2026 이란전에 미국의 발이 묶이면 즉시 중국은 대만을 병합할것이다. 중국에게 대만과의 조국통일은 100년숙원이다. 미국의 이란전이 지상전으로 전개되거나 나토군이 전면 개입하거나 서태평양의 미군무력이 대거 이동하거나 해서 이란정권이 매우 위태롭게 되면, 중국은 대만전을 결단할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대만전은 곧 조선의 <한국>전이고, 이들을 합치면 바로 동아전이다.



동아전이란 중국·조선이 <전략적인내>정책을 접었다는 뜻이 되며 미국등 서방제국이 대러시아전에 집중할수 없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는 동구(유럽)전을 시작하게 된다. 과거 소연방지역을 러연방지역으로 포섭하고 중구·북구국가들을 나토에서 탈퇴시켜 완충지대로 만들겠다는 전략적목표를 달성하려할것이다. 이렇게 동아전과 동구전이 펼쳐져 미국등의 힘이 분산되면 이란은 서아전을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해, 이제는 이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존재여부가 위험한 상황이 된다.

서아전에서 동아전·동구전으로 확대되면 중미(아메리카)도 무사할수 없다. 미제국주의는 동반구에서 후퇴한후 서반구에 요새를 건설하겠다는 수세적전략, <NSS2025>에 의거해 중미의 강력한 반미반제국가들인 베네수엘라·쿠바에 대한 제한전을 개시할것이다. 동반구의 3개전장이 불타는데 서반구의 전장이라고 예외일수 없다. 제국주의진영은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심지어 가장 취약하다는 중미전에서도 일시적으로 우위에 있을수는 있어도 단결한 군대·민중의 힘에 의해 결국 패배할것이다.

제국주의 지배전략으로 얽힌 서아시아와 동아시아

1947.11.29 유엔총회 팔레스타인분할안투표

제국주의·식민주의의 등장과 함께 세계는 <힘의논리>에 의거해 더욱 폭력적이고 강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됐다. 19세기 제국주의는 국내독점자본주의를 정치경제적기초로 해서 탄생했다. 독점자본은 더 많은 이윤의 착취와 약탈을 목적으로 세계규모에서 제국주의를 실시한다. 제국주의국가들은 독점자본의 독점적이윤을 위해 세계적차원에서 독점적지위를 보장한다. 이를 위해 국가가 가진 정치·군사·경제적권력을 동원한다. 제국주의국가간 쟁탈전이 심화되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블록화가 진행되고 20세기초 1차세계대전이 발발했다. 30여개국이 참전하고 약6500만~7000만명의 군인이 동원됐으며 1000만명이상의 군인이 사망하고 2000만명이상의 민간인사망자를 유발시켰다. 과학기술의 이용에 의해 전쟁은 더욱 잔혹해졌고 피해규모도 더 커졌다. 전쟁의 범위도 유럽서부전선·동부전선·이탈리아전선을 비롯해 발칸반도와 서아시아(중동)·아프리카·태평양의 식민지역까지 전세대로 확대됐다. 1차세계대전결과 참전국가들은 승전국과 패전국으로 나뉘었지만 제국주의국가들간의 모순과 갈등이 해소된것은 아니었다. 전쟁으로 러시아제국은 사회주의10월혁명으로 붕괴됐고 패전국인 독일제국·오스만제국·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들도 결국 붕괴·해체됐다. 승전국들도 자국의 정치경제적위기를 해소하지 못했다. 세계는 다시금 1929~33 <대공황>의 위기에 처했다. 일부나라들에서 파시즘체제가 등장하고 이들은 경제의 군사화와 전쟁을 통한 방법으로 위기극복을 도모했다. 1931 일본의 만주점령, 1935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공격, 1937 일본의 중일전쟁희책, 1938~39 독일의 오스트리아·체코병합에 이어 1939.9.1 독일의 폴란드침공으로 2차세계대전이 발발했다. 2차세계대전은 원자탄이라는 최악의 전쟁무기개발과 함께 막을 내렸다. 이미 전세가 연합국측의 승리로 확실시되는 상황임에도 미국은 전후 미국의 패권을 목적으로 원자탄을 일본에 투하했다. 이는 패전국 일본이 자국을 전쟁피해자로 둔갑시키는 빌미로 작용하고있다. 미국은 1·2차세계대전의 <전쟁특수>로 성장해 경제구조가 군사화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전쟁을 요구하는 국가가 됐다. 2차세계대전이후 미국은 <냉전>체제를 획책해 군사화된 경제를 유지하며 정치경제적위기를 모면하려했다. 전후 서아시아 팔레스타인지역에 1948 이스라엘을 건국해 제국주의의 침략적 교두보로 삼았다. 대소련대사회주의권을 포위·봉쇄하는 전선으로 동유럽, 발칸반도에서 1946~49 그리스내전과 동아시아에서 1950~53 코리아전이 진행됐다. 1947.3 트루먼미대통령은 의회연설을 통해 대소련전선을 위한 그리스·튀르키예군사적지원예산책정을 의회에 요청했다. 경제적중속정책으로 <마셜>계획이 진행됐다. 이는 냉전의 실질적선언으로 역사적으로 평가되며 이후 코리아전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이었다. 코리아전은 중국국내혁명전쟁에서의 홍군의 승리로 인해 대만으로 쫓겨난 장개석정권의 운명이 파멸에 이르기직전 발발했다. 세계는 이미 제국주의적지배질서·패권체제속에서 하나의 유기적연관을 맺고있었다.

1898

• 1898 4~8 미스페인전쟁 7 파쇼다사건

- 1904 러일전쟁 ~1905
- 1905 7 가쓰라테프트밀약 8 2차영일동맹

1910

- 1910 <한일병합>
- 1912 1·2차발칸전쟁 ~1913
- 1914 1차세계대전 ~1918
- 1917 러시아사회주의10월혁명
- 1918.1 월슨<14개원칙>
- 1919.3 코민테른 3국제당 6 파리강화회의·베르사유조약
- 1920 국제연맹 세브르조약
- 1923 로잔조약

- 1929 상대적과잉생산세계공황
- 1931 일<만주사변>
- 1933 루스벨트미대통령취임<뉴딜정책>
- 1935 이탈리아에티오피아전쟁

1937

- 1937 중일전쟁
- 1938 독오스트리아병합·체코주데텐란트병합
- 1939 독폴란드침공 2차세계대전 ~1945

1941

- 1941.6 독소련침공 12 일진주만공습·미대일선전포고
- 1942.8 스탈린그라드전투 ~1943.2
- 1943 이탈리아항복
- 1945.4 무솔리니처형 히틀러자살 5.8 독항복서명 8 일항복선언 9.2 일항복서명 10 유엔
- 1946 그리스내전 ~1949 중국국내혁명전쟁 ~1949 1차인도차이나전쟁 ~1954
- 1947.3 트루먼독트린 7 <마샬>계획
- 1948.5 이스라엘건국선언 1차서아시아전

1950

- 1950 코리아전 ~1953.7



1965 반동회의10주년기념행사참석차

동·서아시아반제전선의 성장

자본주의모순의 심화와 함께 19세기 사회주의사상과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이론이 등장했다. 이 사상과 이론은 자본주의가 먼저 발전한 유럽사회의 현실정치에 등장해 실질적으로 발전했다.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사상과 이론은 20세기 1차세계대전을 계기로 러시아제국을 붕괴시키고 인류역사상 첫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는데 성공했다. 제국주의모순의 심화속에 민족해방세력이 성장했다. 이세력은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사상인 사회주의사상이론을 민족해방과업을 실현할수 있는 사상이론으로 수용했다. 2차세계대전을 계기로 민족해방세력이 세계적차원으로 확대되면서 사회주의사상이론의 영향하에 반제적인 자주독립국가를 수립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신생독립국가였고 정치경제적지반이 매우 빈약했다. 최초사회주의나라 소련도 모든 나라를 지원하는데는 객관적한계가 있었다. 역사의 주인이자 창조자인 민중의 자주적요구에 기초하는 매개나라혁명은 <수출>도, <수입>도 불가능하다. 소련이 다른나라 혁명에 개입할거라는 사고는 <냉전>체제를 획책하려는 제국주의세력이 창조해낸 거대한 기만이다. 제국주의는 <냉전>의 논리로 민족해방진영을 억압하고 통제하려고했다. 신생독립국가들은 제국주의의 포위·봉쇄속에 완전한 독립을 위한 힘겨운 투쟁을 벌여갔다. 조선은 신생독립국가들이 단결해 서로 지지하고 지원하면서 제국주의에 반대해 맞서나갈수 있도록 노력했다. 소련사회주의가 흐루시초프의 현대수정주의정책으로 <평화적이행>·<평화공존>노선을 취하면서 이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됐다. 신생독립국가들을 중심으로 블록불가담운동이 발생, 발전했다. 조선은 1965 반동회의10주년기념행사에 참석하며 뜻을 같이 했고 1975 정식 가맹했다. 조선은 정치적선언뿐아니라 군사적지원도 아끼지않았다. 2차세계대전직후 중국국내혁명전쟁에도 동북민주연군으로 군대를 파견하고 무기도 지원했다. 당시 조선도 언제 미제국주의의 침략을 당할지 모를 처지였지만 총기류 10만정을 보냈고 강건·최광·박락권등 군핵심인사들을 파견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1950.5 중국의 하이난도해방작전까지 참전하며 진정한 국제주의전사로서 역할을 했다. 조선은 1960년대 베트남전쟁에도 군대를 파견해 지원했다. 1973 서아시아(중동)전에는 시오니스트국가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이집트·시리아측에 공군병력을 지원했다. 1948이후 4차에 걸친 전쟁에서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국가들은 이스라엘에 의한 패퇴가 불가피해 팔레스타인지역을 시오니스트들에게 내주지않을수 없었고 서아(아시아)지역에 전쟁과 분란의 씨앗, 악의 근원 이스라엘의 존립을 막지못했다. 1979 이란이슬람혁명이후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했다. 미국은 반미국가인 이란을 공격하는 이라크를 지원했다. 조선은 이란에 미사일과 무기를 판매하고 군사고문단을 파견해 전술훈련과 무기운용을 도왔다. 1990년대 조선의 미사일·핵개발을 이란측이 참관한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은 세계정세에서 반제반미역량의 강화를 주시하면서 이에 협력해왔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1990년대 김일성주석의 급서와 사회주의<형제국>들의 외면, 미국의 고립압살책동의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 반제원칙과 무력강화를 강조한 선군정치를 펼쳤다.



1917

• 1917 러시아사회주의10월혁명

• 1919 코민테른 3국제당

• 1922 소련건국

• 1939 2차세계대전 ~1945

1945

• 1945.9 베트남민주공화국 10 유엔

• 1946 중국국내혁명전쟁 ~1949 1차인도차이나전쟁 ~1954

• 1947 트루먼독트린·냉전

• 1948 이스라엘건국·1차서아시아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1949 중화인민공화국

• 1950 코리아전 ~1953

• 1955 베트남공화국 반동선언

1959

• 1959 쿠바혁명

• 1964.8 베트남전 ~1973

• 1971 중유엔상임이사국지위회복

• 1973 4차서아시아전

• 1975 조선불복불가담가맹 1975.4 베트남공화국붕괴

• 1976.7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 1978 미이스라엘이집트캠프데이비드협정

• 1979 이란이슬람혁명 이스라엘이집트평화협정

• 1980 이란이라크전쟁 ~1988

1991

• 1991 소련붕괴

1995

• 1994 김일성주석서거

• 1995 선군정치



실패가 예고된 〈2개전장동시승리〉전략

2003.3.19 부시 대이라크공격개시발표

〈관여외확대전략〉을 안보전략으로 채택한 클린턴정부는 1994.5.20 상하원의원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평화유지군이 나전쟁이외의다른활동에참여하는군대를제외한)미군이국가군사전략에따라주요지역에서거의동시에전쟁을수행할수있는 능력을발휘할것으로확신한다〉고 선포했다. 소련이 붕괴되자 제국주의진영은 〈냉전〉이후 2개전장동시승리전략으로 조선·쿠바등사회주의국가들에 대한 고립압살과 반제이슬람무장투쟁세력에 대한 제거전략을 수립했다. 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외적으로는 유화정책을 실시했지만 내적으로는 공산당유일지배체제와해, 유고슬라비아식체제를 염두하고있었다. 2개전장은 각각 코리아반도와 서아(아시아)를 의미하는것이었는데 2곳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생해도 이길수 있다는 제국주의적자신감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당시 1994.10 걸프만위기가 장기화되자 이같은 상황에서 만일 조선이 도발하면 미국은 2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수 없을것이라는 우려가 미국내에서 제기됐다. 1994.10.11 워싱턴타임스는 〈만일중동과코리아반도에서동시에전쟁이터질경우미국으로서는무기부족으로동시에전쟁을승리로이끌수가없음이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1990.8.2 발발한 걸프전에는 1991.1.17~2.28 미중심다국적군이 개입했다. 걸프전에 미군은 미사일발사대등 전체항공능력90%·폭탄60%를 전장에 동원했으나 미국의 능력이 크게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 이같은 우려에 당시 미국방장관 페리는 〈지구반대쪽에있는2곳에병력과무기를동시에실어나를수승능력이문제가있〉다고 인정했다. 한편으로 1991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1992 IAEA(국제원자력기구)핵사찰협상, 남북고위급회담으로 〈팀스피리트〉 군사연습은 일시중단됐으나 당초협상과 달리 미〈한〉은 일방적으로 1993 〈팀스피리트〉를 재개한다. 이에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전국·전군·전민의 준전시상태를 선포했고 나흘뒤 3.12 NPT(핵확산금지조약)탈퇴를 선언했다. 약2달뒤 1993.5.29 조선은 처음으로 일본열도를 향해 〈화성7〉을 발사하고 다음날인 5.30 사거리2000km의 준중거리미사일 〈화성8〉과 사거리4000km의 중거리미사일 〈화성9〉를 발사시험했다. 화성7·8·9발사후 1993.6.2~11 뉴욕에서 조미양자회담이 진행됐다. 이에 질겁한 클린턴정부는 조선과의 위계임을 수행했고 시뮬레이션결과 개전24시간 230만명민간인사망, 개전1주일 남북·미군병력150만사망, 1994기준 화폐가치 3000억달러피해와 미국측의 참패가 예견됐다. 이같은 파멸적결과에 따라 미국은 대조선군사계획을 철회하고 1994.6.15 카터전미대통령이 미특사로 평양을 방문했다. 1994.10.21 제네바합의를 통해 외교적인 조미관계전환의 결정적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클린턴정부는 1994.10 조미기본합의대로 1997.8 경수로발전소건설착공식은 했으나 의도적으로 공사를 지연시키며 대북고립압살책동을 지속했다. 1998 갱신된 미〈한〉연합사의 대북전면적대비작전계획인 〈5027-98작전계획〉을 공개하며 노골적으로 대북적대시정책을 이어갔다. 클린턴임기 기간 2개전장동시승리전략은 코리아반도와 서아시아에서 전쟁을 동시에 치를수 있고 승리할수 있다는 전략이었지만 조선의 억제력으로 코리아반도에서는 전쟁이 발발하지않았다. 클린턴임기기간 보스니아내전, 코소보공습등에 미군이 참전했지만 대규모시상전이 아니라 공군중심작전이였다. 클린턴정부에 이어 2001 부시정부가 들어서고 〈9.11테러〉가 조작된후 미정부의 안보전략은 〈테러와의전쟁〉으로 규정되며 2001~03 실제 아프간·이라크전에서 2개전장동시승리전략의 한계가 더 명백하게 드러나며 파탄났다. 이후 2012 오바마행정부의 공식전략문서에서 삭제됐다.

1990

• 1990.8.2 걸프전 ~1991.2.28

• 1991 남북기본합의서

1992

• 1992 IAEA핵사찰협상·남북고위급회담 4.6 보스니아내전 ~1995.12.14

• 1993.1.20 클린턴취임 ~2001.1.20 3.8 김정일국방위원장전국·전군·전민준전시상대선포
3.9~18 <팀스피리트>미<한>군사연습 3.12 조선NPT조약탈퇴선언 5.29 화성7호발사성공
5.30 화성8호·화성9호발사성공 6.2~11 조미양자회담 뉴욕

• 1994.5.20 클린턴서한 6.15 카터전미대통령방조 7.21 관여와확장전략 10 걸프만위기 10.21 제네바합의

• 1997.8 경수로발전소건설착공식

1999

• 1999.3.24~6.10 나토코소보공습

2000

• 2000.10.12 조미공동성명

핵무장으로 파탄난 〈악의축〉모락

1998.5.28 파키스탄핵시험 8 조선(광명성1)호발사

냉전종식후 미제국주의는 코리아반도와 서아(아시아)를 전쟁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간주하며 이에 적합한 전력을 건설하고 작전계획을 수립한다. 2001 부시정부가 출범하며 클린턴전임정부의 〈2개전장동시승리전략〉이 사실상 실패한 전략임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결정적계기의 하나는 조선의 핵무장이고 또 다른한는 〈9.11자작테러〉를 명분으로 한 서아시아침략전쟁이었다. 펠·울포워츠·럼스펠드·체니등이 서명한 신보수주의(네오콘)세력의 PNAC(새로운미국의세기를위한프로젝트)는 1998.1 클린턴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중동지역국가들의정권교체〉장기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2000.9 보고서로 작성됐으며 2001 9.11자작테러이후 부시정부에 의해 실행됐다. 2개전장동시승리전략은 부시정부에서 〈1·4·2·1전략〉으로 구체화됐다. 1은 미본토방어를, 4는 유럽, 동북아, 동아도서(대만등), 중동·서아 4개지역에서 전진과 억제, 2는 2개주요전쟁의 신속한 승리, 마지막 1은 2개의 주요전쟁중 1곳에서의 결정적승리를 의미한다. 이전략에서 코리아반도는 미군이 전진배치되는 4개지역과 신속한 승리를 추구하는 2개전쟁지역중 하나이자 결정적승리를 추구하는 1개전쟁지역의 후보이기도 했는데 이는 조선을 염두에 둔것이다. 9.11사건이후 2001.9.30 발표된 4개년국방전략재검토(QDR)보고서에 따르면 미군140만병력유지, 해외배치중심을 기존 유럽에서 태평양으로 이동, 2개전쟁동시승리를 이끄는 윈·윈(Win-Win)전략을 폐기하는 대신 한쪽에서는 압도적승리를 거두는 윈·플러스(Win-plus)전략으로 선회하겠다고 선포하며 미본토방위를 우선과제로 올렸다. 발표지후 2001.10.7 아프간(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다. 2007 클라크 전나토사령관은 인터뷰를 통해 9.11지후 펜타곤(미국방부)에서 4성장군이 보여준 비밀문서에서의 〈이라크·시리아·레바논·리비아·소말리아·수단·이란7개국을5년내정권교체하라〉는 내용을 폭로했다. 이는 네오콘정책으로, 이라크전·아프간전 이후 좌초된것으로 평가됐고 오바마정권이 들어섰을때는 폐기된 정책으로 인식됐다. 이라크전으로 후세인정권이 붕괴하면서 연쇄도미노효과를 기대했으나 이는 명백히 실패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010 리비아의 카다피정권이 〈색깔혁명〉으로 붕괴되고 2024.12 시리아의 아사드정권도 붕괴됐다. 2026.2 트럼프정권이 일으킨 이란전은 아직 진행중이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폭사됐다. 2002.1 부시미대통령은 상하양원합동회의국정연설에서 대테러전략을 설명하며 〈조선·이라크·이란과이들과연합테러리스트들이〈악의축〉을이루고있다〉고 규정했다. 서아·코리아반도를 2개의 주요전장으로 염두에 두고 편성된 미군체계는 2001 아프간전, 2003 이라크전을 종식시키지못하면서 그한계를 드러냈다. 동아에서는 〈총포성없는전쟁〉에 이어 〈보이지않는전쟁〉이 치러졌다. 동아전장과 서아전장은 둘이 아니다. 〈악의축〉으로 지목된 3개국가중 이라크에서는 2006.12 후세인이 처형됐지만 조선과 이란은 강력한 반제무장투쟁전선을 구축해 대응함으로써 제국주의에 굳건히 맞서나갔다. 조선은 수소탄시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장착용핵탄두시험까지 진행, 핵무장력을 시위하며 2023 핵무력현범화까지 완비했다. ICBM의 미본토공격능력까지 완비하고 소형화·경량화된 진술핵탄두와 극초음속 미사일의 최첨단무장장비까지 개발하며 모든 형태의 전쟁에 대응할수 있는 무장체계를 확립하는데까지 이르렀다.

1998

- 1998.5 파키스탄수소탄·원자탄시험 8 조선광명성1호발사

2001

- 2001.1.20 부시시대통령취임 ~2009.1.20 9.11 군사자작테러 9.30 4개년국방전략재검토(QDR)보고서발표
10.7 아프간전 ~2021.8.30

- 2002.1.29 부시<악의축> 9.17 NSS(국가방위전략)2002·<부시독트린>

- 2003.3.20 이라크전 ~2011.12.15

- 2006.12.30 후세인사살

2009

- 2009.1 오바마시대통령취임



2025.6.13 이란 탄도미사일발사, 이스라엘 텔아비브 타격

반제무장투쟁세력으로의 전환

2000년대 조선과 이란은 동아(아시아)·서아의 전장에서 동시전쟁승리전략을 세워 그준비태세를 갖췄다. 미국의 끊임없는 대북고립압살책동을 이겨낸것은 지도자의 위대한 정치력과 압도적인 핵역제력이다. 앞서 조선은 1998.5 파키스탄에서의 핵시험에 참여했다. 밝혀진바에 따르면 핵시험당시 조선은 이란의 군핵심인사를 초청했고 이란은 1998.8 인공위성발사에도 참관했다. 더해 조선은 1998~2006 8년간 이란에 국방공업건설을 지원했다. 카리브해위기에서 교훈을 얻은 조선은 2006까지 18기의 핵미사일을 이란에 배비하는데 성공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이 강력한 반제무장투쟁세력으로 합류한 결과 조미대결전은 반미대결전으로 전환됐다. 부시정부는 2000.10.12 클린턴정부가 조선과 합의한 조미공동성명을 사실상 파기하고 2002 <악의축>발언, 2004 용천역폭발사건을 일으킨다. 2006.7.4 조선은 미국독립기념일에 맞춰 미본토방향으로 <부러진미사일>을 발사했다. 회피기동으로 요격이 불가능한 미사일로, 종말단계에서 낙하하다 탄두 부분이 방향을 바꿔 수직상승한다며 언론에서 붙인 이름이다. 한편 이란은 서아반제무장투쟁세력의 중심에서 이슬람반제무장투쟁대오를 조직 지원했다. 2006 이란과 조선의 연계의혹이 보도되기 시작했다. 조선은 제국주의세력의 대조선 봉쇄·고립압살책동에도 핵·미사일을 계속 고도화했고 반미국가들과 전략적관계를 공고히 하며 군사적으로 지원했다. 이란도 미사일개발능력을 계속 강화했다. 2008.6.15 영국매체 가디언은 스위스사법당국이 입수한 핵탄두설계도가 조선의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7>과 이란중거리탄도미사일 <사하브3>에 각각 장착되는 핵탄두라고 보도했다. 이는 파키스탄의 중거리탄도미사일 <가우리>에도 장착되는것으로 추정된다. 사하브3·가우리는 화성7의 설계기술·완제품을 직수입해 만든 복제품으로 알려져있다. 2022 미중부사령관 맥켄지는 이란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이 <3000기이상>이라고 언급했다. 이란은 1980년대 이라크전이후 미사일과 무인기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1984 이스파한지역에 새로운 원자력 연구센터가 개설됐고 1989 러시아와의 원자력협력협정체결이후 핵개발프로그램이 가속화됐다. 1995 러시아와 이란·이라크전의 여파로 오랫동안 건설이 중단됐던 부셰르원전건설을 재개하는데 합의했다. 2002.8 이란반정부단체가 핵개발과 연계된 나탄주우라늄농축시설과 아락중수생산시설이 IAEA(국제원자력기구)미신고시설이라고 폭로하면서 의혹을 증폭시켰다. 2003.2.9 IAEA사무총장을 이란내 의혹시설에 초청하고 2003.5까지 수차례 IAEA사찰을 수용했다. 이란정부는 2003.10 EU3(영프독)외무장관과 테헤란선언을 하며 우라늄농축과 재처리활동을 중단하고 IAEA사찰을 수용했으며, 2004.11에는 우라늄농축과 재처리관련 활동을 자발적으로 중지하는 이란·EU3<파리합의>를 체결했지만 IAEA는 이란이 비밀핵활동을 계속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란은 반발하며 2005.8.8 우라늄농축재개를 선언한다. 2025.6.26 <12일전쟁>후 보도에 따르면 6.13 이스라엘은 대이란전면공습을 감행하며 핵과학자10명을 사살했고 6.22 미국은 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 이란주요핵시설3곳을 타격하며 <이란핵시설을완전히파괴>선언을 했다. 반면 미국방정보국(DIA)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공격으로 이란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하지못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우라늄을 순도90%까지 농축하면 핵무기제조가 가능하다고 본다. IAEA가 2025.5말 회원국들에 회람한 비밀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이 2025.5.17기준 60% 농축우라늄을 총408.6kg 비축하고있는데 이는 핵탄두9~10개를 생산할수 있는 양으로 추정된다.

1980 • 1980.9.22 이란-이라크전 ~1988.8.20

1984 • 1984 이스파한원자력연구센터개설

• 1989 러시아-이란원자력협력협정체결

• 2002.1.29 부시<악의축> 8 NCRI이란핵시설폭로

• 2003.10 이란·EU3 영국·프랑스·독일 외무장관<테헤란선언>

• 2004.4.22 용천역폭발사건 11 이란·EU3<파리합의>

• 2005.8.8 이란<우라늄농축재개>선언

• 2006.7.5 <부러진미사일>발사

2009 • 2009.1.20 오바마취임 ~2017.1.20
4 광명성2호은하2호발사·2차초전자기파핵시험·특수이온비행체·잠수함실전배치

2025 • 2025.6.13~24 <12일전쟁>

조선의 핵무력의 고도화를 다그친 <전략적인내>

2.28 이란, 이스라엘 텔아비브 타격

오바마정부 들어 게이츠미국방장관은 2010국방전략의 기본지침인 <4개년국방검토(QDR)>를 발표하면서 2개전쟁전략이 <시대를따라잡지못하고있음에도오랫동안유지돼온개념>이라며 수정을 예고했다. 부시정부기간의 핵심전략은 아시아태평양집중전략으로 전환한다. 오바마정부국가안보전략은 <유라시아포위환>·<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에 기초한 <피벗투아시아(아시아회귀)>·<재균형>전략이다. 오바마정부의 군사외교전략은 모두 조선·중국·러시아를 겨냥했고 특히 피벗투아시아전략을 통해 대중국전제외도를 노골적으로 피력했다. 부시전임정부기간 이라크전·아프간전등 서아(아시아)지역에 외교군사역량을 집중해왔고 천문학적인 전쟁비용지출로 재정적자는 급증했다. 2008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는 여기에 기름을 붓는 꼴이었다. 그사이 중국은 G2로 급부상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했다. 이에 2012.1.5 오바마미대통령은 미군을 보다 긴축하지만 세계최강군으로서의 지위는 계속 유지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전략에 따르면 피벗투아시아전략은 곧 재균형전략이다. 미국이 주도해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기존질서, 미국의 지배체제를 뒤집으려는 중국의 도전을 막기 위한것이다. 그방법으로 미국지원을 통해 이지역내 국가들의 경제와 정부, 군사력을 강화시켜 중국에 대항할수 있는 미국주도통합체제를 만들려고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미해군전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재배치하는등 전략과 자원을 이지역에 집중하기로 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이지역의 정치·경제·군사력증강을 위해 대규모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바마는 집권2기에 <전략적인내>정책을 표방하면서 조선이 비핵화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지 않으면 대화를 단절하겠다고 대조선제재를 이어갔다. 반면 이기간 조선은 핵무력고도화를 다그치며 2016 오바마임기마지막해에 전면적인 군사공세에 나섰다. 2016.1.6 소형수소탄시험, 2.7 초강력EMP위성탄두추정<광명성4>호발사시험, 이후 단거리·중거리미사일발사시험과 여러차례 잠수함발탄도미사일(SLBM)발사시험, 9.9 핵탄두시험이 연쇄적으로 이어졌다. 대조선전문가들은 오바마정부의 대조선전략을 두고 미국이 전략적인내정책을 고집한다며 <한국>에서 새정부가 들어설때까지 2년동안 조선과 핵협상은 재개되지않았을뿐아니라 미국과 코리아반도의 안보상황도 더 위험해질수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내에서 오바마의 대조선전략은 실패했다는 여론이 일었다. 더해 제국주의세력의 대중국전략마저도 실패하면서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은 트럼프정부 들어 <인도태평양전략>(2017)으로 전환됐다. 1기트럼프정부시기 조선과의 회담이 성과없이 끝나고 조선은 러시아가 나토의 동진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전을 벌이는 정세에서 러시아와 전략적동반자관계를 구축하고 러시아에 적극적인 군사적지원을 단행했다. 2기트럼프정부는 <신먼로주의>를 선언하며 <서반구요새화전략>을 천명했으나 2.28 서아시아전을 개시하며 동반구로 침략방향을 돌렸다. 3.3 콜비미국방부정책차관이 미연방상원군사위가 개최한 미국의 새국방전략(NDS)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조선의 핵무기와 러시아를 실존적위협으로 지목했다. 콜비는 차관취임이후 첫방문국가로 <한국>을 선택한점을 언급하면서 <그들(한국)이조선에대한주요재래식책임을 맡기로합의했다>고 재확인하고 <손을떼겠다는것이아니다.오히려현실적으로그들이주도권을쥐는것을지켜보겠다고말하는것>이라고 강조했다.

2008

• 2008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금융위기

• 2009 조선6자회담결렬선언 1.20 오바마취임 ~2017.1.20 4.5 광명성3호2호·은하2호발사

2010

• 2010.3.4 4개년국방검토(QDR) 5.27 NSS2010 <전략적인내><포괄적관여>

• 2011.11 힐러리기고·오바마호주의회연설 <피벗투아시아><아시아재균형>

• 2012.12.12 은하3호·광명성3호2호극궤도안착

• 2013.2.12 조선3차핵시험 3.31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경제핵무력건설병진노선
4.1 12기7차최고인민회의<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 공고히할데대하여>법령

• 2016.1.6 조선소형수소탄시험 2.7 조선초강력EMP위성탄두추경광명성4호발사시험 9.9 조선핵탄두시험

2017

• 2017.1 트럼프미대통령취임

• 2019.2 조미하노이회담결렬 4 조러정상회담

• 2021.1 바이든미<대통령>취임

• 2022.2 우크라이나전

• 2023.9 김정은위원장블라디보스톡방문·보스토니치우주기지조러정상회담 10 하마스<알아크사홍수>작전

2024

• 2024.6 조러정상회담·조러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에관한조약 8 우크라이나쿠르스크침공

• 2025.1 트럼프미대통령취임 4 조선쿠르스크파병보도 6 이란<진정한약속3>작전
12 미국가안보전략2025 <미국우선주의><경제안보가국가안보><중견제와힘의균형><먼로주의에대한추론(트럼프코롤러리)>

2026

• 2026.1 미2026국방전략 <힘을통한평화><서반구최우선><중역제및인도태평양전략><동맹의주도적책임강화>
2.28 이란전발발·하메네이폭살 이란<진정한약속4>작전 3.9~19 <프리덤실드>미<한>합동군사연습



중국의 1949미완과업과 2026이란전

2025.9.3 중국 세계반파쇼전쟁승리80돌기념행사

1949.10 중국인민해방군은 진먼다오상륙작전에서 참패하고 1950 코리아전발발과 미7함대의 대만해협봉쇄로 통일의 기회마저 빼앗기자 모택동중국가주석은 <미국의군사적개입을억제하지못하면통일은불가능하다>는 교훈을 새겼다. 1·2차 양안위기당시 미국이 핵사용을 공개 위협하자 중국은 <핵무기는핵무기로소멸해야한다>는 결론에 이르며 1960년대중반 원자탄·수소탄실험과 인공위성발사에 연이어 성공해 <양탄일성>을 이뤄냈다. 1996 3차양안위기에서 미국이 2개의 항모 전단을 파견하자 중국은 또다시 물러설수밖에 없었다. 이골육이 이후 30년간 군사현대화의 기폭제가 됐다. 현재 중국동부전구로켓군은 패트리엇(PAC3)로 요격이 불가능한 DF17극초음속미사일배치를 완료했다. 함정수에서 중국해군은 이미 미해군을 추월했으며 대만상륙의 핵심인 075형강습상륙함4척이 실전배치돼있다. 대만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중국군용기는 2023 1703대에서 2025 2400대를 돌파하며 대만공군의 기체피로도과 정비비용을 계획적으로 소진시키고 있다. 2025.12.29~31 동부전구는 대만을 5개해역·공역에서 완전포위하는 <정의의사명2025>훈련을 실시했다. 대만영해기선12해리근처까지 군함과 해경선을 접근시켜 실질적봉쇄를 리허설했고 1만t급이상민간로선20여척으로 장갑차를 상륙시키는 훈련도 포함됐다. 정규상륙함의 부족을 민간선박으로 메우는 실질적전쟁준비조치였다. 2023.8 시작된 군부부패척결로 큰 전쟁을 앞두고 내부이견을 제거하고 명령체계를 1원화했다. 2026.2~3 이란과의 긴장고조로 <링컨>함·<포드>함등 최소2개이상의 미항모타격전단이 서아시아(중동)에 전개됐다. 미국이 보유한 11개항모중 즉시가용자산은 한정적이며 서아시아에 2~3개전단이 묶이면 대만해협을 방어할 상시전력은 사실상 공백상태에 빠진다. 트럼프는 2026.1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인터뷰에서 <시진핑주석은대만을중국의일부로보고있으며,무엇을할지는그가결정할일>이라며 대만침공을 <레드라인>으로 규정하지않았다. 전미(대통령) 바이든의 <전략적명확성>과 확연히 대비된다. 한편 다카이치일본총리가 <대만유사사위태개입>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규슈남서제도에 사거리1000km이상의 지대함미사일 배치를 시작하자 중국은 이를 군국주의부활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했다. 2.18~19 주(한)미군전투기들이 실탄을 장착한 공중훈련중 방공식별구역으로 접근하자 중국도 전투기를 대응출격시키면서 중미전투기들이 서해상에서 한때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중미는 3.31~4.2 정상회담을 앞두고있다. 무역·관세조정이 핵심의제로 예상되지만 미국이 벌여놓은 이란전과 중국의 제1핵심이익인 대만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주목된다. 미대법원이 트럼프식상호관세를 위법판결하며 트럼프의 협상카드가 약화된 상황이고 미국의 베네수엘라·이란공격은 중국의 원유수급을 방해하며 경제적압박을 가중시키고있다. 2026양회에서 중국은 성장률목표를 35년만에 최저수준인 4%대로 낮췄다. 미CIA(중앙정보국)는 시진핑이 중국인민해방군창립100주년인 2027까지 대만침공준비완료로 지시했다고 주장해왔다. 홍군이 남긴 유일한 미완의 과업인 대만해방과 영토완정의 실현은 시진핑체제의 역사적정당성을 완성하는일이라는 평가다. 이란전이 터진 지금, 중국이 코리아전당시 티베트를 병합한 역사적사실이 주목받는 이유다.



1946

- 1946 중국국내혁명전쟁 ~1949
- 1950 코리아전 ~1953 10 중국인민지원군코리아전참전 중티베트병합
- 1954 1차양안위기 ~1955

1958

- 1958 2차양안위기
- 1964 중원자탄실험
- 1967 중수소탄실험
- 1970 중인공위성발사
- 1983 등소평<1국양제>제안
- 1989 <천안문사건> 달라이라마노벨평화상수상
- 1995 3차양안위기 ~1996
- 1997 홍콩중반환<1국양제>

2000

- 2000 대만민진당첫집권
- 2009 신장위구르반중시위
- 2012.10 중공산당시진핑총서기
- 2013 시진핑<1대1로>
- 2014 포르탈레자회의 NDB CRA
- 2015 홍콩반중시위 12 AIBB
- 2016 대만민진당집권

2024

- 2019 홍콩반중시위
- 2020 대만민진당재집권 5 홍콩국가안보법제정
- 2021 홍콩선거법개정 1 바이든미<대통령>취임
- 2022.2 러우크라이나전 10 중국공산당20차전국대표대회·시진핑체제확립 11 신장위구르반중시위
- 2023.10 하마스<알아크사홍수>작전
- 2024.4 이란<진정한약속1>작전 10 이란<진정한약속2>작전
- 2025.1 트럼프미대통령취임 5 러전승절80주년열병식·시진핑참석 6 이란<진정한약속3>작전
- 9 중항일전승80주년열병식·조러정상참석 10 조선노동당창건80돌경축열병식 12.29~31 중대만포위훈련<정의의사명2025>

2026

- 2026.2.18~19 주<한>미군전투기·중전투기대치사태 3 중앙회 3.31~4.2 중미정상회담 예정



교전중인 두국가관계 〈한국완전붕괴〉경고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이후 총선거를 통한 단일국가건설노선은 1960 4.19항쟁이후 재차 제안됐으나 1961.5 박정희 군사쿠데타로 무위로 종결됐다. 김일성주석은 1962.10 카리브해위기의 정황속에 최고인민회의연설에서 국방력강화를 강조했다. 이는 뒤에 〈경제국방건설병진노선〉으로 구체화됐다. 김일성주석은 이연설에서 미국이 남조선을 〈원자탄및로켓1기지〉로 전변시키고있음을 지적하고 일본군국주의의 부활과 〈한〉일회담을 통한 〈동북아시아군사동맹〉구축시도를 경고했다. 1980 조선노동당6차대회에 이르러 혁명을 비공개하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으로 1민족1국가2체제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반미구국통일전선노선을 한편으로 하고있었다. 1987 6월항쟁과 민주화가 대선에서 군사정권의 재집권으로 결론지어지면서 1990년대 연방제통일목표도 실현되지 못했다. 1991 소련붕괴라는 국제환경이 달라진 조건에서 조선은 〈한국〉과의 유엔동시가입을 수용하고 12월에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1993 〈팀스피리트〉미〈한〉합동군사연습재개에 맞서 조선은 NPT(핵확산금지조약)탈퇴를 선언했다. 1994 조미기본합의서는 핵동결과 관계정상화를 교환하는 구도였으나 부시정부의 등장과 함께 파기됐다. 김일성주석서거직후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선군정치를 선언하고 비상체계속에서 핵개발을 공식화했다. 6차회담이 진행됐다. 2차에 걸친 남북수뇌회담은 결정적인 전환을 이뤄내지 못했다. 김정은국무위원장은 2016 당7차대회에서 통일에는 평화적방법과 비평화적방법이 있다면서 〈남조선당국이제도통일을고집하며전쟁의길을택한다면정의를통일대전으로반통일세력을쓸어버릴것〉이라고 밝혔다. 2018~19 판문점남북수뇌회담, 조미정상회담이 진행됐으나 2019.2 하노이회담이 결렬됐다. 김정은위원장은 앞서 2019.1 신년사에서 〈새로운길〉을 예고했다. 2020 코비드19대유행상황이 전개되고 이해 6월 김여정부부장을 대남사업총괄이라고 밝힌 뒤 김여정부부장의 지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데까지 나아간다. 2022 전세계적전쟁정세고조를 거치며 2023.7 김여정부부장이 〈대한민국족속들〉·〈대한민국의군부깡패들〉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해 12월 조선노동당중앙위8기9차전원회의에서 〈적대적두국가노선〉을 당정책에 반영하고 2024.1 김정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14기10차회의시정연설을 통해 〈북남관계가더이상동족관계, 동질관계가아닌적대적인두국가관계, 전쟁중에있는완전한두교전국관계〉며 〈조선반도에서전쟁이일어나는경우대한민국을완전히점령·평정·수복하고공화국영역에편입시키는문제를반영〉할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화와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기구와 단체들이 정리됐고 〈남북국경〉의 모든 연계통로가 물리적으로 차단됐다. 조선은 2026.2 당9차대회에서 재차 〈한국〉을 〈동족이라는범주에서영원히배제한다〉고 못박았고 〈핵보유국의문전에서...우리의안전환경을다쳐놓는행위로인정되는경우임의의행동을개시할수있다〉고 경고하며 〈비과학적이고비현실적인것으로증명된한국과의대화과협력〉에 추호도 집착하지않겠다고 확인했다. 2026 미국의 이란공격으로, 서아시아에 미국의 군사자산이 집중되면서 동아시아에 대한 억제력에 실질적공백이 발생하고있다. 중국의 대대만전략과 조선의 대〈한〉전략은 미국이라는 공통변수앞에서 구조적으로 맞물려있다. 1980 당6차대회에서 혁명전략을 비공개했다면 2024.1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을 가진 통일전선공개전략을 폐기했다. 9차대회는 〈한국완전붕괴〉란 혁명전쟁의 가능성만 남았다는 경고다.

1945

1945 일제폐망 1948.4 남북연석회의 8 <대한민국>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50 코리아전 ~1953.7

1960

1960 4.19항쟁 8.14 김일성주석<총선거제안><연방제방식도가능> 1961 5.16박정희군사쿠데타 9 조선노동당4차대회
1962 카리브해위기 경제국방건설병진노선 1963 조선인민군<일당백>구호 1966 조선노동당2차대표자회
1968 <푸에블로>호사건

1976 판문점미루나무사건

1980.10 조선노동당6차대회 1982.6 김정일국방위원장영군체계확립·당중앙군사위삼지연회의 1985 조선NPT가입
1987 6월항쟁 12 <한>대선 1989 조선상운수소용합개발 프랑스상업위성조선해물질관측

1991

1991 남북유엔등시가입 12 소련붕괴 남북기본합의서
1993.3 김정일국방위원장<준전시상태>명령하달 3.12 조선NPT탈퇴선언
1994.7 김일성주석서거 10 조미기본합의서 1995.1 선군정치

2000

2000.6.13~15 남북수뇌회담 2002 부시<악의축> 2003.8 6자회담 2007.10 남북수뇌회담 2010 대북전단살포본격화

⋮

2011

2011.12 김정일국방위원장서거 김정은최고사령관
2012.4 김일성주석탄생100돌기념열병식
2013.3 경제핵무력건설병진노선

2016.5 조선노동당7차대회
2017.9 국무위원장성명
2018.4 남북수뇌회담 6 조미싱가포르정상회담
2019.1 김정은위원장신년사<새로운길> 2 조미하노이회담결렬
2020.6 김여정부부장대남사업총괄 남북연락사무소폭파
2021.1 조선노동당8차대회
2022.5 윤석열대통령취임

2023

2023.7 김여정부부장<대한민국족속들><대한민국의군부깡패들> 12 조선노동당8기9차전원회의
2024.1.15 김정은위원장최고인민회의14기10차회의시정연설<적대국관계><제1의주적> 9~11 윤석열정부무인기평양공격
12.3 윤석열<비상계엄>선포·내란책동
2025.4 윤석열대통령파면 6 이재명대통령취임

2026

2026.2.19~25 조선노동당9차대회<한국완전붕괴가능성배제할수없다> 2.28 미국이란전개시